유럽인문아카데미 강의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8강

# 티머시 모튼

# 하이퍼객체, 저주체의 생태학

## 엄숙과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6월 2일

- 영문학자이자 생태이론가
- 미국 라이스 대학 영문학과의 리타 시 거피(Rita Shea Guffey Chair) 교수
- 문학 속 음식 및 육체 연구, 생태학, 객체 지향적 존재론, 생물학, 양자물리학 등 초학제적

1994. *Shelley and the Revolution in Taste: The Body and the Natur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adical Food: The Culture and Politics of Eating and Drinking, 1790-1820* (Routledge)
2000. *The Poetics of Spice: Romantic Consumerism and the Exo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ary Shelley's Frankenstein: A Routledge Study Guide and Sourcebook* (Routledge)
2002. *Radicalism in British Literary Culture, 1650-18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ultures of Taste/Theories of Appetite: Eating Romanticism* (Palgrave Macmillan)
2006.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el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cology Without Nature: Rethinking Environmental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The Ecological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Realist Magic: Objects, Ontology, Causality* (Open Humanities Press)
2013. *Hyperobjects: Philosophy and Ecology after the End of the Worl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2016. *Dark Ecology: For a Logic of Future Coexist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Books)
2018. *Being Ecological* (Pelican Books)
2021. *Spacecraft* (Bloomsbury Academic)
2021. *Hyposubjects: On Becoming Human* (Open Humanities Press, with Dominic Boyer)
2023. *The Stuff of Life:* (Bloomsbury)
2024. *Hell: In Search of a Christian Ec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국내 번역

- 어두운 생태학 2024 / 2016 ✓
- 저주체 2024 / 2021 ✓
- 하이퍼객체 2024 / 2013 ✓
- 실재론적 마술 2023 / 2013
- 생태적 삶Being Ecological 2023 / 2018 ✓
- 무에 대한 탐구 2024 / 2015
- 인류 2021 / 2017

Timothy Morton 2010, 「Queer Ecology」 In: 『PMLA(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25(2) ✓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

- 어두운 생태학 2016 (번역 2024)

- 퀴어 생태학 2010

「Queer Ecology」In: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125(2)

# 이념화된 자연으로서 환경

자연의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주의가 치안을 유지하는 그 경계와 유사한 내부-외부 구조에 기반한다. (Ecology 19, 25, 40, 52–54, 63–64, 67, 78; “Ecologocentrism”)

이성애중심의 자연주의 - 영장류학자 드발은 동성애중심의 자연이 실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틀러와 비교)

생명은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거나 중앙집중형 권위적인 게 아니라 파국적이고 괴물 같으며 비전체론적이면서 탈구되어있다.

# 퀴어 생태학으로의 전환하는 과도기적 양상

# transitional mode이 곧 어두운 생태학이다

↶ 자연에 대한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상호연결된 생명체의 좀비 같은 특징을 인정하기

‘심층생태학’이 깊이와 진정성으로 은유된다면,

‘어두운 생태학’은 깊지만 아이러니하고 욕망을 인정한다

# “유기체론은 생태적이지 않다.” (모튼의 퀴어 생태학)

- 많은 환경주의는 (시스템론은 더 그렇지만) 유기체적이라고 한다. 그런 전체론적 유기체주의는 권위주의적 남성주의에 너무 자주 순응해왔다.
- 전체론적 유기체 형태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론적 유기체론organicism은 생태적이지 않다. (Morton 2010)
- 전체론적 유기체주의의 세계는 마음에 부합하고 마음은 세계에 부합한다는 사유는 목적론의 한 형태다.
- 상호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은 세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물망 이론은 유기체에서 벗어나 있지만 동일 수준에 놓인 대안이 아니다.
- 일신교적 종교나 전제주의 권력 역시 그 전체는 항상 부분들의 합보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전체를 외파적 전체explosive holism 라고 한다. (어두운 생태학,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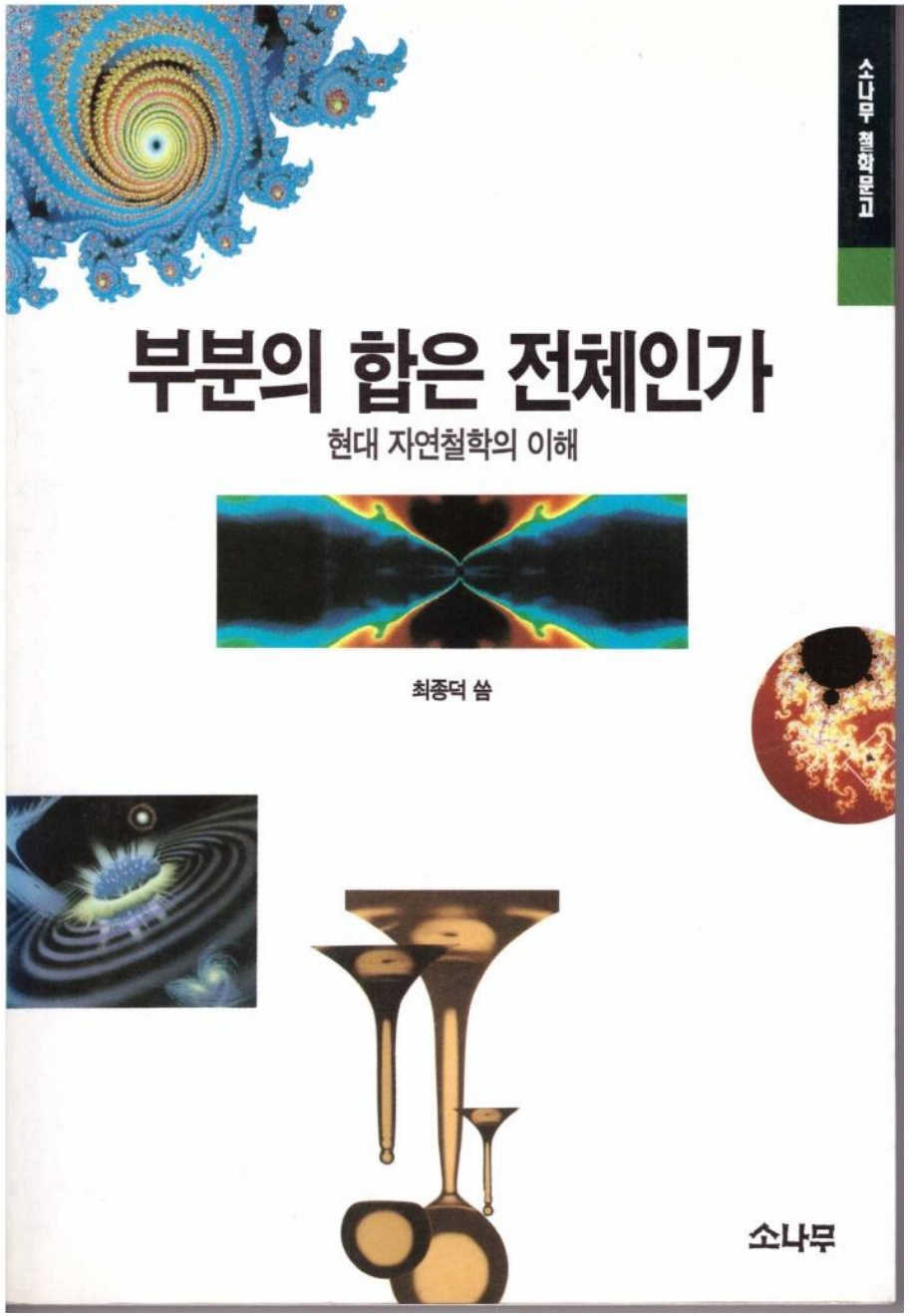
Timothy Morton 2010, 「Queer Ecology」 In: 『PMLA(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25(2): 273-282.

# 어두운 생태학

- '자연' 개념의 해체: 자연 없는 생태학(낭만적 자연 개념이나 현수막 환경 보호주의 거부)
- 인간-비인간의 연결성 강조
- 불편한 하이퍼객체(Hyperobjects)를 인정하고 직시하기
- 절망과 우울을 회피하지 않고, 우울을 통한 생태적 알아차림
- '범죄에 연루된 형사' 비유
- 동등한 존재로서의 객체들의 공존

# 지속가능성의 로지스틱스 대신에 모튼은,,

- '존재론적 이질성(Ontological Asymmetry)'의 인정: 반중심, 반위계, 서로 영향
- '물러서 있음(Withdrawal)'의 직시: 객체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 연결망(Mesh)' 속에서의 공존: 인간-자연의 복잡한 생태적 '연결망' 속에서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색
- '어두운 생태학'의 수용: 절망, 우울에 마주하여 불편한 진실과 예측 불가능성을 직시하는 '어두운' 태도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지정권, 유일신 시스템론)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수학)
-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모든의 하이퍼 개체)

# 하이퍼객체: viscous, non-local, interobjectively

- 비인간주의 + OOO
- 생활세계계 속에 침투된 실재
- deep-time에 걸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지구온난화처럼 직접 볼 수 없고 일부만 인식된다.
- 뒤로 물러나 있기withdrawn 때문에 기이하고 낯설게 여겨진다.strange stranger
- 메타언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매타언어는 화이트헤드가 비판한 근대의 추상화된 1차성질에 해당)
- 인간은 객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40)
- 비환원적이어서 실재들 사이의 위계나 우위성은 없다.(44)

#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OOO;  object-oriented ontology

1. 원시적인 물질 덩어리-세계로 상정되어진 파생물이 아니다. 라투르도 이에 동의한다.
2. 객체는 자신의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라투르 동의)
3. 객체는 인간의식에 나타나는 외양으로 환원될 수 없다.
4. 객체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라투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먼은 말한다. 라투르에게 객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연결항이 요청된다. 하먼은 이런 연결항을 국소적 기회원인론이라고 해석한다. 라투르 자신은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5. 객체는 자신이 세계의 여타 객체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정의(환원)될 수 없다.(422)
6. 객체를 경험하지만 감각자료 덩어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홀처럼), -생태적 삶 48쪽

(하먼 2019, 406)

네트워크의 군주

# 하먼(Graham Harman)의 객체지향 존재론 OOO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406쪽)

1. 객체는 원시적인 물질 덩어리-세계로 상정되어진 파생물이 아니다.
2. 객체는 자신의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3. 객체는 블랙홀처럼 인간의식에 나타나는 외양으로 환원될 수 없다.
4. 객체를 경험하지만 감각자료 덩어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생태적 삶, 48쪽)

# 하이데거의 인간의 도구존재론에서 탈피한 모튼의 "객체"

- 하이데거의 Zuhendenheit(손 안에 있음, 인간의 목적활동 안에서 도구적 존재) 와 Vorhandenheit(눈앞에 있음, 도구의 존재 자체를 의식, 물질적 대상으로, 도구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는 둘 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모튼은 판단한다.
- 객체는 인간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모튼의 주장이다.

(생태적 삶, 61-2쪽)

# 하이퍼객체의 viscous 특성

- 하이퍼객체는 agents다.(61)
- 광섬유케이블처럼 그 내부에 심대한 비가시적 인과관계가 흐른다는 점에서 하이퍼객체는 악마적이다(62)
- 끈적거림, 끈적이는 꿀 단지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 그리고 손이 꿀에 녹아 내리는 느낌, 마치 잼에 빠져 익사한 말벌처럼.  - 권력이 빠져죽는 그런 느낌이다.(65)
- 그 끈적거림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재론적으로 꺼내주지 못한다.(77)
-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인간)도 역시 장비(apparatus)의 한 부분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79)

# 하이퍼객체의 non-locality 특성

- 몬산토 제초제 roundup 로 키운 농산물(유전자조작농산물)은 세계로 퍼져나가, 그 직접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어서 객체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는 몬산토와 그들의 과학신봉자는 말한다.
- 양자역학의 양자는 실재 객체다(real object) 하나의 현상이 실재다(84) 현상은 하나의 불연속적 유닛으로(discrete units), 이 spooky한 현상을 보여주는 EPR 실험은 비국소성의 전형적인 사례다.(90-92) 오히려 국소성이 추상적 산물이다(103)
- 접힘과 펼쳐짐 – 전자는 실재하지만 통계적인 실행perfomance로만 드러날 뿐이다.(96)

# 하이퍼객체의 interobjectivity 특성

- 사물 앞, 사물 사이에 놓인 심연은 상호객체성의 특징이다.
- 상호주체성은 상호객체성이라는 배위공간의 한 구역(부분)일 뿐이다.(172) –급진적 비대칭성(이성이나 공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객체성)
-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국소적 상호객체성의 심대한 mesh 가 겉으로 드러나 하나의 instance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 하나가 바로 국소적이고 인간중심적 상호주체성일 뿐이다.(172)
- 상호객체성의 시스템이 mesh라고 한다(173) 마음도 그 사례다.

# 상호객체성 사례, 공룡발자국, 우주배경복사

- 공룡은 6천만 년 전 멸종했지만 바위-인간-공룡-공룡지식 확장이라는 ‘사이’에서 감각적 연결로 맺어진 상호객체이다.(181)
-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남긴 흔적이며 우주배경복사는 우주대폭발의 흔적이다. 이 흔적은 하이퍼객체의 흔적이다. 흔적은 인과의 기호signs of causality이다. 원인과 기호 사이의 차이를 지운다. (186)
- 과거의 '공룡 발자국'과 같은 구체적인 흔적조차도,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배경복사’(2.7캘빈)와 같은 '하이퍼객체'의 '흔적'이자 '영향'의 일부이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자들이 거대한 초객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매혹의 무지개에서 눈을 뜨고 처절한 납골당을 직시하기

“세계가 없다면 자연도 없다. 세계가 없다면 생명도 없다. 자연과 생명이라는 특권 서클charmed circle 바깥에 납골당charnel ground이 존재한다. 그곳은 삶과 죽음, 삶-속-죽음, 죽음-속-삶의 장소이자 좀비, [바이러스보다 작은] 바이로이드viroids, 정크 DNA, 유령, 규산염, 청산가리, 방사선, 사악한 힘, 오염 물질이 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장소다. 내가 생태학적 각성에 저항하는 것은 납골당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 (하이퍼객체, 257쪽)

# 생태학적 각성 (하이퍼객체, 262쪽)

- 생명, 환경, 자연의 추상적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고 '하이퍼객체 ' 를 직시할 때 불편하고 생소하며 거북하기까지 한다.  이런 uncanny valley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각성'이다.
- '환경', '세계', '생태 시스템', 심지어 '지구'까지도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전체' 개념은 환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태학적 각성이다.
- 이런 개념은 인지적 편의를 위한 추상화이며 아픈 데 말고 환성의 건강한 데(인종)만 찾는 차별주의/인종주의적 접근이다.
- 실제로는 수많은 개별 '객체'들의 예측 불가능한 '얽힘'만이 존재한다.
- 모든 존재자(인간, 비인간, 생명, 비생명)들은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 우리는 지구를 특별히 신성시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재단할 수 없다.

# 모턴의 지구철학

- 인류사건과 인간 관점을 탈피한 사유
- 계량화된 “기후변화” 개념을 포괄한 사회정치적 “지구온난화” 문제로 접근한다.(23)
- 기후변화 개념은 지구의 자연적인 변화과정의 하나라는 자본우파들 주장에 자칫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4)
- 라투르와 달리 근대인의 궤도를 인정하여 대안을 찾는다.
- 대안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모턴의 능동적 사유다

# 모턴이 지적한 거대 가속 Great Acceleration

1784년 제임스 왓트의 증기기관 이후 지구 표층에 탄소가 축적되었듯이

인류세 지구는 1945년 이후 방사능 물질로 퇴적된 지질층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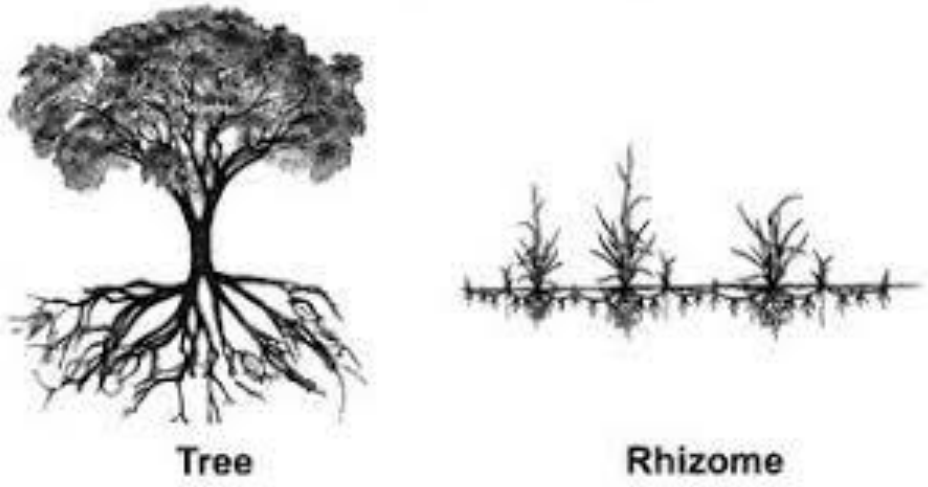
이런 급격한 변화를 거대가속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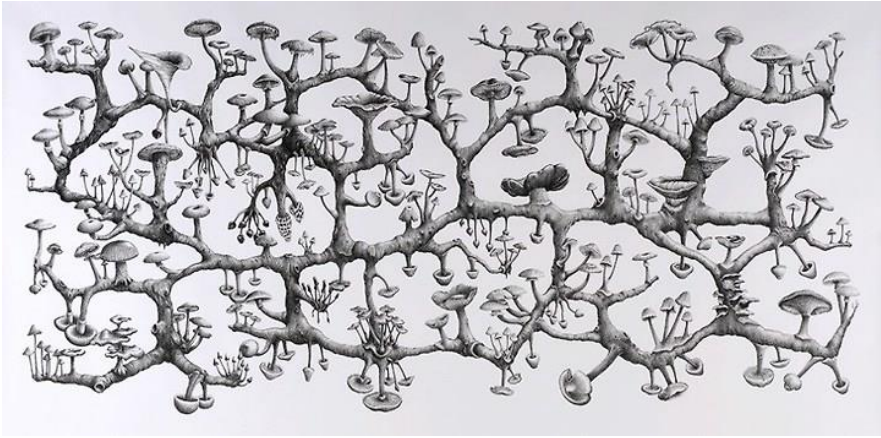
(모튼 2022, 17)

# 모튼의 그물망

그물망은 환경주의("생명의 그물")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애정하는 많은 유기적 은유처럼 부드럽고 물렁하지 않다.

추정컨대 비계층적이기 때문에 "수목적인" 형태보다 선호되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리좀과 같은 아이디어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Morton, Ecology 52–53, 107–09)



"비트가 존재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1+n의 파동이 있어야 한다"

(하이퍼객체, 161)

- **모턴의 "1+n" 이란**: ' 하나 ' 의 파동(현상)에 ' 다수(n) ' 의 다른 파동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반위계적, 집합적, emergent 한 과정성

- **들뢰즈의 "n-1"과 비교한다면**, "n-1"은 '하나'(중심)가 제거되어도 전체가 여전히 다수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

# 하이퍼객체의 전모를 다 알 수 없다.

# 모튼의 “기입”사건 inscription events

- 라투르의 “기입” 개념을 수용
- MP3 혹은 JPEG 등의 디지털 신호를 제작할 때, 아날로그 원형에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면서 디지털로 표현된다.
- 디지털 표현은 아날로그 원형을 다 표현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 객체를 표현하는 기입은 “지표적 기호 " 의 한계를 갖는다고 모턴은 말한다.
- 이 한계, 지표적 기호와 객체 사이의 어긋남을 하이데거 표현을 따라 “파열”rift이라고 한다.(외양과 자체 사이의 틈)

(하이퍼객체, 163-4)

# 화이트헤드의 부분과 전체

부분(다자)의 합생1

전체(유기체, 일자)

일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그런 부분들(새로운 다자)의 합생2

전체(새로운 유기체, 일자)

또 다시 일자의 객체화

이 객체(부분)들의 합생3

또 다른 전체(일자, 노벨티로서 유기체)

# Timothy Morton 모튼의 부분과 전체

1. 부분의 자기 존재성 subscendence
2. 부분은 전체를 넘어서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작다.
3. 부분 하나가 자기의 개별적 특성을 갖는다. 객체는 더 작은 객체로 환원되지 않으며 더 큰 객체로 사라질 수도 없다. (하이퍼객체, 236)
4.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존재라서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5. 부분들의 "비전체"적인(비-총체, 집산적인, nonwhole) 얽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 -즉 비전제는 전체론이나 환원주의가 아니다
6. 부분은 단순한 전체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의 논리를 초과하고 잉여를 가지는 자기-존재적인 실재

# 객체— 감각 객체와 실재 객체

- 객체에는 상위객체, 하위객체가 없다. (하이퍼객체, 237)
- 실재 개체는 withdrawn 되어 있어서 다른 객체(인간 포함)에게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 객체는 다른 객체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그런 드러남이 감각 객체의 외양이다.
- 감각객체와 실재객체는 현상과 본질의 차이와 비슷하다. 실재가 감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창발적이다. (하이퍼객체, 240)
- 감각개체와 실재개체 사이의 틈을 인정하고 객체들의 고유한 실재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

# 하이퍼객체의 인과성

- 선형적 인과는 더 이상 안통한다
- 원인과 결과사이가 너무 멀고 복잡하여 인간의 인식 밖에 있다.(인과적 역설이라고 모턴은 표현한다)

# 하이퍼객체 윤리학, deep time에 걸린 죄수의 딜렘마

- 초객체에 갇힌 '현재의 나'와 '미래의 누군가'를 두 죄수에 비유하여 현재의 나와 미래의 누구는 서로 핵방사능이라는 초객체에 의해 서로 얽혀 있다.
- 현재 세대가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배신' 행위와 같으며, 이는 결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심각한 파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 최적의 선택은 '다른 수감자(미래 세대)의 안위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
- 단기 사익 추구 대신, 상호 협력과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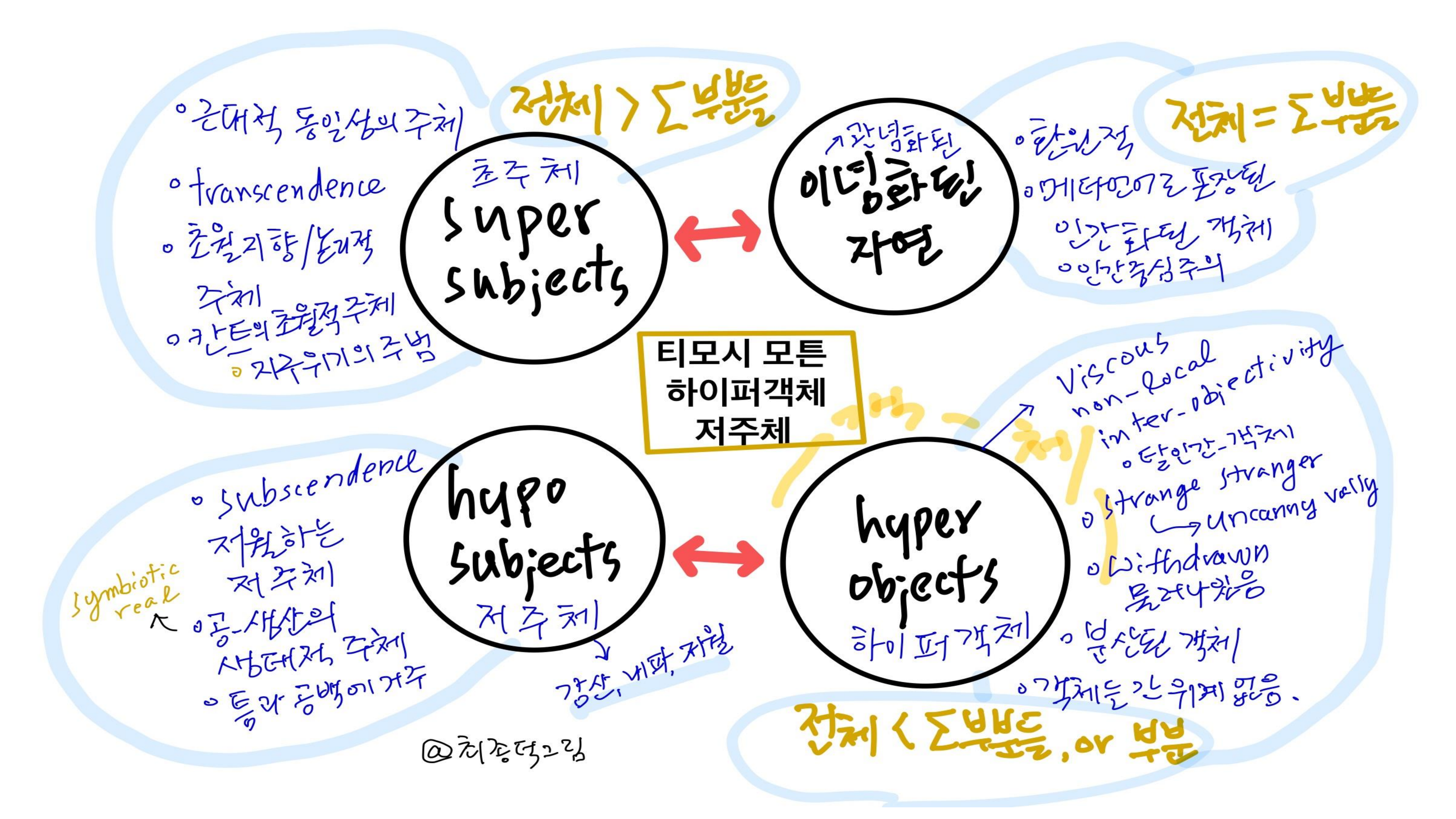
(하이퍼객체 2부 3장)

# 비관에서 대안으로

# 초주체에서 저주체로

초주체super-subject가 초월자transcendence에 대한 주체라면,

저주체hypo-subjects는 저월자subscendence로 저월하는 주체



전체 > Σ부분들
◦근대적 동일성의 주체
◦transcendence
◦초월지향/본래적 주체
◦칸트의 초월적 주체
◦지구위기의 주범
초주체
super subjects
→관념화된
이념화된 자연
전체 = Σ부분들
◦환원적
◦메타언어로 포장된 인간화된 객체
◦인간중심주의
티모시 모튼
하이퍼객체
저주체
객-체
◦subscendence
저월하는 저주체
symbiotic real
◦공-생산의 상대적 주체
◦틈과 공백에 거주
hypo subjects
저주체
감산, 내파, 저월
Viscous
non-local
inter-objectivity
◦탈인간_객체
◦strange stranger
→uncanny vally
◦withdrawn 물러나있음
hyper objects
하이퍼객체
◦분산된 객체
◦객체들 간 위계 없음.
전체 < Σ부분들, or 부분
@최종덕그림

# 초주체 supersubjects

- 하이퍼객체 시대로 이끈 주체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이퍼객체 시대의 동반자로 될 수 없는 주체
- 전형적으로 백인, 남성이고 북부의 사람이고, 영양상태가 좋은 근대적 인간으로 은유됨
- 초월적 형이상학과 근대인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나아가 전체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주도했던 주체
- **'초주체성(Superscendence)'**은 앞서 설명한 **'하이퍼객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하고 나르시시즘적인 태도**

# 나르시시즘의 역설

- 우리는 지금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오직 우리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는 모순적인 나르시시즘의 애착에 빠져있다.
- 인류가 자신에게 가진 거대하고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 자체도 마치 기후 변화처럼 거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하이퍼객체 ' 다.

# 하마르티아(Hamartia)

(저주체, 33)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의 '결함'이나 '과오'를 모르고 우리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함

-하마르티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먹이사슬의 정점이 있지만 정점이 있는 것이 외롭고 힘든 상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위치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고, 힘든 상황(예: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역설

-이 고독감과 힘듦이 바로 우리의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주는 경험

# 나르시시즘과 화해 (저주체, 31-5)

• 하이퍼객체를 저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오도된 방법이 ‘나르시시즘적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는 생각이다.

•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타자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피드백 고리(성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이 과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타자와 관계 맺는 '나'라는 주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 저주체 hyposubjects

- 인류세 이전부터 살던 지구인
- 하이퍼객체 환경과 마찬가지로, 저주체 또한 다면적이고 다원적이며, 아직-아님이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며, 부분이 전체합보다 크다.
- 페미니즘적이고, 반민족자본주의적이며, 다인종적이고, 퀴어적이며, 생태적이 고, 트랜스휴먼이자 인트라휴먼.
- 저주체는 틈과 비어있음에 거주한다. (예: 탄소 격자[그리드] 생활과의 연결을 끊고, 비축된 에너지 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해킹하고 재분배한다)
- 지금은 초월적 초주체가 지구를 괴롭히고 있지만, 미래는 저주체의 것.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저주체로서 다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저주체, 19-26쪽)

# 저주체 hyposubjects: 감산적, 내파적, 저월적

✓**감산적(subtractive):** 더 많은 소유와 증대하려는 증가적additive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를 빼고 욕망을 줄이는 길

✓**내파적(implosive):** 외부 세계를 계몽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우리의 의지를 폭발적(explosive)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중심해체 행로로서 내부로 '붕괴'하거나 '수축'하는 길

✓**저월적(subscendence):** 군림하고 통제와 초월의 초월superscendence 태도가 아니라 작은 부분으로서 '아래 ' 의 타자들과 수평적이고 겸손하게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길

# 근대인의 실험장치가 아닌 장난감으로 (저주체, 43-4)

-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장난감과 같다. '장난감'처럼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며, 고정된 진리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세상의 모든 것을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우리의 상호작용이다.
- 지구 생태계 파괴는 거대한 '산업 질서' 때문인데, 이 산업 질서를 마치 '견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장난감'처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 도나 해러웨이의 '놀이' 개념과 연결: '놀이'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굳어진 사회적 틀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벗어나기 힘들지만 하이퍼객체를 째려보기
# 장난감 놀기의 은유 (저주체, 43-4)

-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며 유동적이라서, 고정된 진리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지구온난화의 '산업 질서'를 마치 '견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순응하지말고**, **장난감처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다루면서,** '장난감'처럼 상호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태도

# 신유물론 입문서를 읽으시려면,

- 문규민,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2022

-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브뤼노 라투르, 로지 브라이도티, 제인 베넷, 도나 해러웨이, 카렌 바라드의 생각. 2024

모든의 생태학

끝